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 “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광주전남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 기대” 광주·전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행사 참여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12일 동신대학교(전남 나주)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행사에 참석했다.
 -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는 금년 중 총 8회에 걸쳐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,
 - 이번 설명회는 지난 3.29일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한 채용설명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.
 - * 합동채용설명회 계획 : 강원(3.29), 광주·전남(4.12.), 대구·경북(4.25.), 부산(5.3.), 울산(5.17.), 경남(5.24.), 충북(9.4.), 전북(9.12.)
- 이날 행사는 한국전력공사, 농어촌공사 등 광주·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되었는데,
 - 각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세한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.
 - 이와 함께, 지역인재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의 취업성공사례 발표, 실제 면접사례를 활용한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.
- 이날 손병석 차관은 행사 개최식 축사를 통하여 “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늘여가도록 하겠다”라고 하였다.

- 아울러 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광주·전남지역 인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”라고 소감을 밝히면서,
 - “특히 한국전력 전자·전기 실무교육, 전력기자재 제조업체 현장 견학 등 지역교육과정(오픈캠퍼스)을 통해 젊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맞춰 진로를 모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하였다.
- 한편 손병석차관은 행사를 참석한 후 광주·전남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였다.
- 손차관은 현장에서 혁신도시 개발현황을 청취하고, 이날 함께 참석한 공공기관 및 나주시 관계자들에게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과 협조를 당부하였다.

2018. 4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